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YOIDO FULL GOSPEL SEONGBUK CHURCH

“듣는 마음” 책자 소개

‘듣는 마음’이란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내 안에 임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큐티(QT, Quiet Time)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듣는 마음”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성경을 읽어가고, 말씀에 집중된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듣는 마음’ 활용법

예수님은 이천년 전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듯,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 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재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마태복음 6:9-10)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내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게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2.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편 1:1-2)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은 조용하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듯(사31:4),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소리내어 고백하며, 선언하고 선포하듯이 읽으십시오.

3. 말씀으로 기도하기

(베드로전서 2:1-2)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읽기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갓난 아기들과 같이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나아가 말씀읽기를 통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읽기와 기도는 결코 나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실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으로 기도하여,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 보십시오.

블레싱 타임 : 듣는 마음 ·4

오늘의 성경읽기

블레싱 타임 : 주간 메시지 나눔 ·128

12월 6일 공과 - 심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12월 13일 공과 -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12월 20일 공과 - 좋은 왕, 나쁜 왕
12월 27일 공과 - 므낫세의 큰 악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

선교사 열전 ·136

하디 선교사(3)

역대하 1:1-12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솔로몬의 꿈**

1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2**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3**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야훼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4**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랴트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5**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야훼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6** 야훼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7** 그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8**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9** 야훼 하나님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11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가 7장

7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누가복음 16장

13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역대하 1:1-12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솔로몬의 꿈(1-10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지금까지 없었던 대단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 마리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천번제가 바로 그것입니다(6절). 어쩌면 이 대단한 일천번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보고자란 솔로몬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 부모 세대는 자녀의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믿음을 닮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솔로몬의 대단한 제사 이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의 소원을 물으시고(7절) 솔로몬은 그 질문에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10절). 얼마든지 세상의 좋은 것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11-12절)

지혜와 지식을 구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넘어 세상의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11절).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재물, 그리고 영광까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2:1-16 성전건축이 시작되다

솔로몬이 성전건축을 시작하다

1 솔로몬이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2 솔로몬이 이에 집권 칠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팔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삼천 육백 명을 뽑고
3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4**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야훼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5**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6**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 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7**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8**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게되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니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9**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재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10**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짙은 밀 이만 고르와 보리 이만 고르와 포도주 이만 밶와 기름 이만 밶를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의 왕이 성전건축에 동참을 약속하다

11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12**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송축을 받으실지로 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야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13**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14**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홍색 청색 실과 가는 베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15**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16**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읍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재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나훔 1장

15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역대하 2:1-16

성전건축이 시작되다

솔로몬이 성전건축을 시작하다(1-10절)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은 다양한 의미에서 대단한 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다윗이 꾸었던 꿈을 자녀인 솔로몬이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꾸었던, 부모 세대의 꿈이 자녀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뿐 아닙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은 단순히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꿈을 품으며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루었던 신앙의 전수를 사모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로의 왕이 성전건축에 동참을 약속하다(11-16절)

솔로몬은 성전건축을 위하여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전을 지어갈 사람과 자원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위하여 두로의 왕인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답변을 주며 일종의 계약이 성사됩니다. 이것은 성전건축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 성전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대단한 유산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처소로서 이스라엘 왕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었으며, 나아가 솔로몬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참된 성전이 되어 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3:1-16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지어가는 성전

1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야훼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었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2**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3**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육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며 **4**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백이십 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5**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6**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7**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지성소의 그룹들

8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도 이십 규빗이라 순금 육백 달란트로 입혔으니 **9** 못 무게가 금 오십 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10**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11**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이십 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다섯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12**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13**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이십 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14**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베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15**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삼십오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다섯 규빗이라 **16** 성소 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백 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17**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4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나훔 2장

13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꿰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역대하 3:1-16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지어가는 성전(1-7절)

2장에서 언급된 두로의 왕 히람과의 약속을 통하여 성전건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장은 그 성전이 어디에 지어지며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다윗의 흔적을 봅니다. 그가 준비해두었던 터. 그리고 그가 영감으로 받았다고 했던(대상28:12)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심,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멋진 장면입니다. 이렇게 지어지는 성전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소의 그룹들(8-16절)

지어지는 성전의 어느 부분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단연 최고는 지성소일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온통 반짝이는 금이었습니 다. 못의 무게만도 금 오십 세겔이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9절). 그 지성소를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거대한 두 그룹입니다. 이 두 그룹 역시 반짝이는 금으로 입혀졌습니다(10절).

지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특히 지성소 안의 언약궤의 덮개 위에 마주한 두 그룹은 속죄소(죄가 사해지는 자리)이자 시은좌(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대속죄일에 이 속죄소 위에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진노를 해결하십니다(레16장). 그리고 이는 신약에 와서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롬3:25)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해결해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다윗과 솔로몬의 합작품인 성전은 당시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대하고 있습니까? 최고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5:11-14, 6:1-11 성전에 임한 야훼의 영광

성전에 임한 야훼의 영광

11 이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12**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백이십 명이 함께 서 있다가 **13**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와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야훼의 영광 안에서 드린 솔로몬의 기도

1 그 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감감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2**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3**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서 있더라 **4**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5**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6**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7**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8**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9**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10**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11** 내가 또 그 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일서 4장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나훔 3장

4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누가복음 19장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역대하 5:11-14, 6:1-11

성전에 임한 야훼의 영광

성전에 임한 야훼의 영광(5장 11-14절)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을 전부 성전에 넣은 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성전에 가져다 놓고서야 비로소 진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될 것이며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11~14절에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덮이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구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곳에 머무른다'는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전을 계속해서 사모하셔서 그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의 영광 안에서의 드린 솔로몬의 기도(6장 1-11절)

성전에 야훼의 영광이 가득한 그때 솔로몬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보이는 듯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2절). 주님께서 이곳 성전에 영원히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이어 그는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3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히 덮여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심을 모두에게 강력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솔로몬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길 바랍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6:12-23 솔로몬의 봉헌 기도

솔로몬의 봉헌기도 1

12 솔로몬이 여호와와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13** 솔로몬이 일찍이 늦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요 너비가 다섯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14**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15**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7**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봉헌기도 2

18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19**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으며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22**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하므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23**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박국 1장

11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누가복음 20장

38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 계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역대하 6:12-23

솔로몬의 봉헌기도

솔로몬의 봉헌기도 1(12-17절)

성전이 완공된 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전을 덮고 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6장 전반부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솔로몬의 기도는 이어집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기도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성취이며, 앞으로도 이 성전을 통해 이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간구의 근거도 언약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언약, 즉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드러질 때 힘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봉헌기도 2(18-23절)

약속을 근거로 간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기도의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닌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성전을 찾는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며, 문제로 성전을 찾은 이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판결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런 은혜가 성전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성전에 머무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이 성전에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성전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7:1-14 성전 낙성식

하나님의 응답

1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야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2**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야훼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3**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야훼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4**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야훼 앞에 제사를 드리니 **5**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이만 이천 마리요 양이 십이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6** 그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야훼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야훼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야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7** 솔로몬이 또 야훼의 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늦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8** 그 때에 솔로몬이 칠 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9**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칠 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칠 일 동안 지키니라 **10** 일곱째 달 제이십삼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야훼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

11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야훼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12**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이서 1장

3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박국 2장

20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15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역대하 7:1-14

성전 낙성식

하나님의 응답(1-10절)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 즉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야훼의 영광이 전에 가득 함으로 그 제사를 열납하셨습니다.

성전 뜰에 모여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 주셨으므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찬송했습니다. 또한 왕과 모든 백성이 야훼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전의 낙성식을 행하였으며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마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11-14절)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쳤을 때 성전에 모였던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던 날 밤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 곳에서 하는 기도 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기아나 열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바른 길로 행하여 어긋남이 없으면, 이스라엘 을 다스릴 자가 그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8:1-16 솔로몬의 업적

솔로몬이 건축한 성읍들

1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이십 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3**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4** 또 광야에서 다드몰을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5** 또 윗 벧호론과 아랫 벧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빋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6**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7**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남아 있는 모든 자 **8**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꾼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9**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10**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이백오십 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의 행적

11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12**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야훼의 제단 위에 야훼께 번제를 드리되 **13**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일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14**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15**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16** 솔로몬이 야훼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야훼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삼서 1장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박국 3장

18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가복음 22장

27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역대하 8:1-16

솔로몬의 업적

솔로몬이 건축한 성읍들(1-10절)

본문은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과 큰 번영을 보여 줍니다. 솔로몬은 이십 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후람이 돌려준 성읍들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정복한 곳에 성읍을 계속하여 건축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를 위해 왕궁을 건축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솔로몬 왕국에서 온전히 성취해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이 역사적, 실제적, 가시적 성취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왕국에 실현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 하셨던 다윗 언약을 통해 솔로몬 시대에 부요하고 막강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적(11-16절)

솔로몬은 모세의 명을 좇아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예물을 드렸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성전에서 거룩한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이 합의한 대로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핌으로써 왕의 명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함으로 야훼의 전이 결점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9:1-21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스바 여왕의 방문

1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2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3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4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야훼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5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6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7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아,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라 8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9 이에 그가 금 백이십 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10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11 왕이 백단목으로 야훼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12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13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요 14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15 솔로몬 왕이 쳐서 늘인 금으로 큰 방패 이백 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육백 세겔이며 16 또 쳐서 늘인 금으로 작은 방패 삼백 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삼백 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17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18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19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20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21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 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삼 년에 일 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유다서 1장

20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라

스바냐 1장

7 주 야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야훼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야훼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누가복음 23장

28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역대하 9:1-21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스바 여왕의 방문(1-12절)

이방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려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답했으며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소유했던 지혜가 얼마나 풍부하고 영향력이 있는가를 발견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후 솔로몬에게 금120달란트와 많은 향품과 보석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13-21절)

솔로몬이 일생 동안 큰 권세와 부귀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실로 평안한 가운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백성들을 다스렸던 왕이라는 점은 유사 이래 어떤 왕도 솔로몬만큼 부귀와 권세를 누리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로써 솔로몬을 향하여 전에도 없었거니와 후에도 없을 정도로 큰 부귀와 재물과 존영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10:1-15 북쪽 지파들의 배반

르호보암의 왕위 계승

1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2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낫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3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4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메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5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삼 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6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7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8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9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10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행위

12 삼 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 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13 왕이 포박한 말로 대답할새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14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15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야훼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스바냐 2장

3 야훼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9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역대하 10:1-15

북쪽 지파들의 배반

르호보암의 왕위 계승(1-11절)

본문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을지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음을 전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을 이웃의 어떤 나라 보다도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편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너무나 과중한 세금과 노역을 부과함으로써 경솔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 지파의 지지를 얻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세겜으로 갔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명에를 무겁게 했지만 르호보암이 명에를 가볍게 한다면 섬기겠다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들의 말에는 르호보암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신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행위(12-15절)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젊은 이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더 강한 전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드리지 않자 백성들은 유다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열 지파의 분리를 낳았습니다. 이로써 아집이나 잘못된 혁신을 버리고 공정하게 백성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11:1-17 스마야가 야훼의 말씀을 전하다

전쟁을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

1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십 팔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2** 야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4**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5**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 하였으니 **6** 곧 베들레헬과 에담과 드고아와 **7** 벧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8**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9**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10**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11**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12**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귀환

13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14**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야훼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15**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솥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16**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17** 그러므로 삼 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삼 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스바냐 3장

17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역대하 11:1-17

스마야가 야훼의 말씀을 전하다

전쟁을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1-12절)

본 장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크게 용감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군대를 일으켜 반역의 무리를 진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금하셨을 때 르호보암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순종함으로써 양심적인 모습을 보이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야훼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그 명하심을 거역하면 자신의 앞날이 형통치 못하리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국 내에 있는 주요 성읍들과 변방의 경계를 강화하고 각 성읍마다 창고를 두고 곡식과 무기를 저장해, 전쟁보다는 방비와 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로써 적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며 정복자가 아닌 건축자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귀환(13-17절)

북이스라엘의 신실한 레위인들은 우상 숭배를 일삼는 여로보암에게서 떠나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유다로 건너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3년 간 유다를 도와 르호보암을 강성케 했습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13:1-18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아비야의 즉위와 통치

1 여로보암 왕 열여덟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2** 예루살렘에서 삼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3**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사십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팔십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4** 아비야가 예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5**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6**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7**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르므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 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8**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야훼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9** 너희가 아론 자손인 야훼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10** 우리에게는 야훼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야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 **11**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야훼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훼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12**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의 참패

13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돌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14**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15**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6**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17**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오십만 명이었더라 **18**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음이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학개 1장

7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8**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2장

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역대하 13:1-18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아비야의 즉위와 통치(1-12절)

본 장은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싸움에서 유다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경우와 달리 아비야에게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이 유다의 왕권이 자기에게 넘어와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 아비야가 맞서 용감히 싸우겠다고 나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용납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열 지파로 큰 규모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아비야는 두 지파로 사람 보기엔 열악한 군사이지만, 하나님께서 기꺼이 아비야를 통해 죄악에 물든 여로보암을 응징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참패(13-18절)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유다를 포위 공격했지만 유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승산이 없는 싸움일지라도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아 믿음 안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14:1-15 아사가 유다 왕이 되다

하나님께 충성된 왕 아사

1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십 년 동안 평안하니라 **2**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3**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4**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 야훼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7**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8**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삼십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이십팔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의 패배

9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하여 군사 백만 명과 병거 삼백 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10**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1**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 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려 왔나이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니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 야훼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3** 아사와 그와 함께 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 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야훼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4** 야훼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15**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1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학개 2장

5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요한복음 3장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역대하 14:1-15

아사가 유다 왕이 되다

하나님께 충성된 왕 아사(1-8절)

아사 왕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주의 규례를 귀히 여기며 일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지켜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사는 우상숭배를 철폐하며 이방신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우상 훼파와 함께 백성들의 회개가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전통을 되살려 체제를 정비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함 없이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의 패배(9-15절)

구스 사람 세라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옴으로써 아사 왕국이 잠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때 아사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하였고 아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의명분으로 삼았으며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아사로 하여금 큰 군사를 이끌고 온 구스 사람 세라를 이기는 영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구스 사람이 진을 쳤던 곳에서 많은 물건을 노략했으며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돌아오는 물질적 풍요도 얻게 하셨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16:1-14 이스라엘과 유다의 충돌

아사와 벤하단의 동맹

1 아사 왕 제삼십육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2** 아사가 야훼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3**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4**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5**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6**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재목을 운반하여다가 계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7** 그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 구스 사람과 룬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야훼를 의지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9**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10**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 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 왕의 최후

11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12** 아사가 왕이 된 지 삼십구 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야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13** 아사가 왕위에 있는 지 사십일 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14**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스가랴 1장

17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야훼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4장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역대하 16:1-14

이스라엘과 유다의 충돌

아사와 벤하단의 동맹(1-10절)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기 위해 라마를 건축합니다. 아사는 북이스라엘의 바아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아람 왕 벤하닷에게 뇌물을 보내며 도움을 구하는 외교 정책을 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스를 물리쳤던 과거의 신앙적인 행동에서 크게 후퇴한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 군대를 끌어 들임으로써 문제를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히려 조언을 한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성도는 형통할 때나 그렇지 못할때나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여 방심한 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치 않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예롭게 하십니다.

아사 왕의 최후(7-14절)

마침내 아사는 그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야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함으로 실로 어리석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결국 아사 왕은 끝까지 순전함을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늘 힘써 믿음에 깨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17:1-19 말씀으로 세우는 나라

신실한 왕 여호사밧

1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2**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3**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5** 그러므로 야훼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6** 그가 전심으로 야훼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7** 그가 왕위에 있는 지 삼 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8**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나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9** 그들이 야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친 왕

10 야훼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11**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숫양 칠천칠백 마리와 숫염소 칠천칠백 마리를 드렸더라 **12**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13**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14** 군사의 수효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삼십만 명을 거느렸고 **15**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난이니 이십팔만 명을 거느렸고 **16**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야니 그는 자기를 야훼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이십만 명을 거느렸고 **17**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이십만 명을 거느렸고 **18**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십팔만 명을 거느렸으니 **19**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0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스가랴 2장

10 야훼의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요한복음 5장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역대하 17:1-19

말씀으로 세우는
나라

신실한 왕 여호사밧(1-9절)

소망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 하나님을 구하면 유다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사밧은 아사왕 때 불미스런 일의 단초가 되었던 북 이스라엘에 대한 확실한 방어망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에브라임 성읍들에게도 수비대를 배치합니다. 바알송배가 극심한 북이스라엘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그 계명을 따랐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 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친 왕(10-19절)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즉위 3년째 되는 해에 야훼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파송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5명의 방백과 9명의 레위 사람, 그리고 2명의 제사장들을 파견하여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며 율법을 지도하게 하였습니다. 또 여호사밧은 백성들의 관습과 사법적인 일들에까지 세밀한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18:1-11 다수의 위험

여호사밧과 아합의 동맹

1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 이 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3**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두 왕

4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야훼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 보소서 하더라 **5**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사백 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6**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야훼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야훼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8**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9**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10**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찢어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11**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야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0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스가랴 3장

7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쉰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6장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역대하 18:1-11

다수의 위험

여호사밧과 아합의 동맹(1-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바라셨기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북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도입한 매우 악한 왕입니다. 북 이스라엘 왕이지만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 아합의 딸 아달라를 장차 유다 왕이 될 여호람의 아내로 삼은 것은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간관계는 또 다른 악을 끌어들이니다.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사돈지간이 된 여호사밧이 군사 동맹까지 맺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두 왕(4-11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선지자 400명 가량을 모아 놓고서, 아합이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예언자들은 야훼께서 그 성을 아합 왕의 손에 넘겨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올라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상하게 느꼈던지 이 밖에 우리가 물어 볼 만한 야훼의 예언자가 또 없느냐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야훼의 뜻을 물어 볼 사람으로서,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는 한 번도 좋게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나쁜 것만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아합에게 제안해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왕이 신하를 불러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만든 철뿔들을 가지고 나와서 야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아합 왕이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거기 있던 여러 예언자들도 모두 아합이 승리할 거라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라고 예언했습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19:1-11 하나님을 위한 재판

여호사밧을 향한 책망

1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2**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야훼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3**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공의를 이루기 위한 계획

4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고 **5**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6**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야훼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7** 그런즉 너희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8**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야훼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9**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야훼를 경외하라 **10**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야훼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11** 야훼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라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야훼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스가랴 4장

6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요한복음 7장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역대하 19:1-11

하나님을 위한 재판

여호사밧을 향한 책망(1-3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야훼를 미워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한 아합을 돕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하면서 야훼의 진노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과 동맹을 맺고 연합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선하게 행한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구하고 찾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긍휼이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여호사밧도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훨씬 큼니다.

공의를 이루기 위한 계획(4-11절)

전쟁 후에 여호사밧은 개혁을 단행합니다. 개혁의 핵심은 유다의 모든 성에 재판관을 세워서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재판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야훼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의 재판관으로 세운 사람에게도 성심을 다해 야훼를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선견자 예후로부터 들은 예언을 의식한 듯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을 세워서 유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죄를 경계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21:1-15 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

1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3**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전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4**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5**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삼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팔 년 동안 다스리니라 **6**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7** 야훼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라 **8**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9**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10**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 때에 립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 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렸음이라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

11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12**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13**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14** 야훼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15**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20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스가랴 5장

4 만군의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겠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요한복음 8장

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역대하 21:1-15

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1-10절)

여호람은 이전의 유다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아우들과 방백들을 살해했습니다. 자기 왕권에 방해가 되는 인물을 제거하며 왕권을 강화하려는 세상의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시돈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처럼, 이세벨의 딸과 결혼한 여호람도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 즉 그의 후손을 통해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겠다는 언약 때문입니다. 유다의 속국이었던 유다 남동쪽의 에돔과 블레셋 국경지대의 립나가 배반해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이는 여호람이 야훼를 버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호람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빼앗거나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악을 묵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다윗의 후손이라도 죄에 대한 징계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엘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11-15절)

선지자 엘리아가 유다 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여호람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구구절절 베어있습니다.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로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아사의 길과 정반대로 가고 있음을 질타합니다. 우상숭배를 ‘음행’에 비유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혐오스러운 죄인지를 지적합니다. 또한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라고 함으로써 형제 살해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임을 말합니다. 여호람은 이 경고의 편지를 받았을 때 즉시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22:1-12 악한 세상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아합의 집을 따른 아하시야**

1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2**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사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일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3**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꺾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4**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야훼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5**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6**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라가 이스르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7**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가므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야훼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8**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9**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으며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학살 가운데 살아남은 요아스

10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11**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12**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스가랴 6장

15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야훼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요한복음 9장

38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역대하 22:1-12

악한 세상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

아합의 집을 따른 아하시야(1-9절)

여호람이 죽자 그의 막내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야는 42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년을 다스렸습니다. 아하시야는 그의 사악한 어머니 아달라의 영향으로 바알을 숭배하고 아합 가문의 가르침을 따라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을 맞아 싸울 때에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하였습니다.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예후는 이미 야훼께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려고 기를 부어 세우신 자였습니다. 예후가 아하시야를 죽이면서 이르기를 “그는 온 마음으로 야훼를 구하던 여호사밋의 아들이라”라고 하면서 그를 장사하였습니다.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살 가운데 살아남은 요아스(10-12절)

아하시야가 살해되자 그의 모친 아달라는 다윗 왕가의 씨를 진멸하고 왕권을 잡으려 합니다. 여호람 왕의 딸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두었으므로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 왕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요아스는 아달라가 그 땅을 다스리던 6년 동안 그들과 함께 야훼의 성전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24:1-14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성전 보수를 작정한 요아스**

1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칠 세라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2**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3**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4** 그 후에 요아스가 야훼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5**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6**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야훼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7**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야훼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성전 보수를 실행한 요아스

8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야훼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9**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야훼께 드리라 하였더니 **10**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11**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 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12**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야훼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야훼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야훼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13** 기술자들이 말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14**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야훼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야훼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스가랴 7장

9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요한복음 10장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역대하 24:1-14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성전 보수를 작정한 요아스(1-7절)

요아스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계획을 세우고 지시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아달라의 아들들에 의해 파괴되었고 성전의 모든 성물은 바알에게 바쳐졌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따른 성전세를 거두도록 명령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빨리 진행되도록 재촉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 때문에 요아스는 하루 빨리라도 성전을 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성전 보수를 실행한 요아스(8-14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달라의 손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고 나이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도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는 그의 통치에도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성전 수리가 지체되자 요아스는 성전을 위한 세금을 야훼께 직접 드리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었고 성전이 이전 모양대로 보수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유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25:1-13 참된 승리의 비결

아마샤와 에돔의 전쟁

1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2** 아마샤가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3** 그의 나라가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4**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야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5**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 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이십 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삼십만 명을 얻고 **6** 또 은 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십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선지자의 충고와 아마샤의 결단

7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8**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앞드리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9**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야훼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10**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11**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이고 **12** 유다 자손이 또 만 명을 사로 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13**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벧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삼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스가랴 8장

22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야훼를 찾고 야훼께 은혜를 구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읽기 가이드

역대하 25:1-13

참된 승리의 비결

아마샤와 에돔의 전쟁(1-6절)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야훼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습니 다. 그는 왕권이 전고해지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 다.

선지자의 충고와 아마샤의 결단(7-13절)

아마샤는 많은 군사를 모집했는데 은 100달란트로 북 이스라엘 용병 10만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1-6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용병을 의지하려는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 북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고 용기를 내어 세일 자손과 전쟁을 합니다. 결국 수많은 세일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확실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26:1-15 야훼를 찾으라

웃시아의 행동

1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십육 세 된 웃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2**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웃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3** 웃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십육 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이 년 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4** 웃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웃시아의 강성함

6 웃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7**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8** 암몬 사람들이 웃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웃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9** 웃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이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10**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11** 웃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12** 족장의 총수가 이천육백 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13** 그의 휘하의 군대가 삼십만 칠천오백 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14** 웃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15**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스가랴 9장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요한복음 12장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역대하 26:1-15

야훼를 찾으라

웃시아의 형통(1-5절)

야훼를 버린 아마사가 비참하게 죽은 후 웃시아는 16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웃시아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사가 처음에 행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야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 있는 동안, 웃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가 야훼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52년 동안 통치한 웃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1-5절).

웃시아의 강성함(6-15절)

웃시아 왕은 야훼를 찾고 구하므로 블레셋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블레셋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정복했고 암몬 사람들은 웃시아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웃시아는 점점 강성해 졌고 그의 강성함이 애굽 변방까지 알려졌습니다. 웃시아는 나라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들 곁에 망대를 세우고 그 성을 요새화합니다. 거친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고 우물을 팠고 평지에서는 가축을 길렀고 산과 밭에는 농부와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을 둡니다. 또 군사력도 강성해져서 2천 6백 명의 족장이 있었고 그들 아래에 30만 7천 5백 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왕으로 사명을 열심히 감당 했을 때 유다가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6-15절).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27:1-9 선은 배우고 악은 버리라**바르게 행한 요담 왕**

1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2** 요담이 그의 아버지 웃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야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의 강성함

3 그가 야훼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4**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5**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백 달란트와 밀 만 고르와 보리 만 고르를 바쳤고 제이년과 제삼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6** 요담이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7**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8**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십육 년이라 **9**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스가랴 10장

8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요한복음 13장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역대하 27:1-9

선은 배우고
악은 버리라

바르게 행한 요담 왕(1-2절)

웃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은 웃시야가 한센병이 들어 왕직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요담의 통치는 웃시아의 통치와 관련이 많습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웃시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웃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의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는 야훼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 다. 웃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직접 분향하려 했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바른길을 가려고 애썼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갖는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변할 것입니다.

요담의 강성함(3-9절)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하십니다. 요담은 아버지 웃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건축 사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야훼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견고한 요새와 망대를 가진 여러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또한 암몬 자손이 아버지 웃시야 때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자, 암몬을 쳐서 제압하고 계속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요담이 강성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웃시야가 교만해져서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음으로써 강성해진 것처럼 요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강성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이 지시한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29:20-30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기쁨

성전의 일이 갖추어지다

20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야훼의 전에 올라가서
21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와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숫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야훼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22** 이에 수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숫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23**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숫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24**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라

레위인들의 찬양과 경배

25 왕이 레위 사람들을 야훼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전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야훼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26**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27**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야훼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28**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29** 제사 드리기를 마치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30**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전자 아삽의 시로 야훼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스가랴 11장

16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흠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굵을 찢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읽기 가이드

역대하 29:20-30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기쁨

감사의 찬양과 제사(20-30절)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사를 마친 후에 히스기야는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 왕과 다윗 시대의 선지자들인 갓과 나단을 통해 하신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사의 번제를 드릴 때 레위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합니다. 제사장들도 나팔을 불며 찬양하자, 왕과 온 백성이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와 즐거움의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요구됩니다. 즉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더 깊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30:13-22 예배 드림이 기뻐됩니다

큰 기쁨의 유월절

13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14**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15**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야훼의 전에 이르러 **16**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17**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야훼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18**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야훼여 사하옵소서 **19**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20** 야훼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21**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칠 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야훼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야훼를 찬양하였으며 **22** 히스기야는 야훼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칠 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감사하였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5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스가랴 12장

10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요한복음 15장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역대하 30:13-22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큰 기쁨의 유월절(13-22절)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아직 남아 있는 우상의 제단과 향단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부정한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율법의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성소의 규례대로 깨끗게 못했는지라도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온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모든 백성은 크게 즐거워하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합니까? 다른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더 사모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최우선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31:1-10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부흥

퍼져나가는 개혁의 불길

1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회복

2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야훼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3**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야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4**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야훼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5**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6**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7**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8**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야훼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9**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10**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야훼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스가랴 13장

2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요한복음 16장

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역대하 31:1-10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부흥

퍼져나가는 개혁의 불길(1절)

거룩함의 불길이 한번 치솟으면 그 불길은 사방으로 퍼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정화, 제사장과 레위인의 성결,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확인한 회중은 절기가 끝난 후에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나민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 므낫세 땅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있는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들 속에 일어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은 성전과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이스라엘 땅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때,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현장도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회복(2-10절)

거룩함을 향한 부흥의 불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산재해 있던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정한 뒤에 각자 직임에 따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야훼를 섬기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자기 재산을 떼어서 정기적인 제사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에게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음식을 주도록 명령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쓰도록 조치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백성은 5개월 동안 더미를 쌓아야 할 만큼 모든 소산의 첫 열매와 십일조를 풍성히 드렸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으로 이뤄집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32:9-23 앓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다**앓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

9 그 후에 앓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0** 앓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11** 히스기야가 너희를 꺾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앓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님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12** 이 히스기야가 야훼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13**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14**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15**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16**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야훼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17**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18**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19**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

20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 야훼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앓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앓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었더라 **22** 이와 같이 야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앓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23**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야훼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 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5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스가랴 14장

9 야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야훼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역대하 32:9-23

앗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다

앗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9-19절)

앗수르 왕 산헤립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구원자, 야훼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 전술로써, 쉽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기를 꺾어 놓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산헤립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조치를 비방함으로써,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이간시키는 술책도 시도했습니다. 이처럼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는 것이 사악한 세력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악의 계략에 쉽사리 쓰러지고 넘어지면 안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20-23절)

앗수르 군대의 조롱을 듣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 차림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참으로 그가 비통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앗수르 군대를 물리치셨으며, 그토록 참람한 말을 함부로 내뱉던 산헤립은 결국 궁중 반역으로 살해당하는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33:1-17 유다 왕 므낫세

므낫세의 행적

1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 동안 다스리며 2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3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4 야훼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야훼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5 또 야훼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6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야훼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7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8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9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의 회개 기도

10 야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11 야훼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12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았더라 14 그 후에 다윗 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15 이방 신들과 야훼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야훼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16 야훼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하며 17 백성이 그의 하나님 야훼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5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말라기 1장

11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요한복음 18장

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9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역대하 33:1-17

유다 왕 므낫세

므낫세의 행적(1-9절)

본장은 남 유다 왕국의 제 14대 왕이었던 므낫세와 그의 뒤를 이은 제 15대 왕 아몬의 통치 행적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와 아몬은 각각 55년과 2년이라는 대조적인 재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의 악을 범함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었던 인물입니다. 한편 본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부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악행을 범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 족속들보다 더 열심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므낫세는 그들을 죄악으로 이끌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할진대, 본문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각 지도자들에게도 각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회개 기도(10-17절)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숭배의 소굴로 전락시켜 버린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의 극성적인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미 북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적이 있는 앗수르 제국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치게 하였고, 그 결과 므낫세는 쇠사슬에 결박당해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 언약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 비로소 회개하는 므낫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34:8-21 유다 왕 요시야의 개혁

요시야의 성전 수리

8 요시야가 왕위에 있는 지 열여덟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9**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10** 그 돈을 야훼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야훼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11**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결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12**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13**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율법책의 발견

14 무리가 야훼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야훼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15**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야훼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16**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17** 또 야훼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쏴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18**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19**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20**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1**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라기 2장

4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9장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역대하 34:8-21

유다 왕 요시야의 개혁

요시야의 성전 수리(8-13절)

요시야는 그의 재위 18년(그의 나이 26세)에 사반과 마아세야, 요아를 임명해서 그들에게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장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돌면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한 기금을 모아서 그것을 대제사장인 힐기야에게 주어 그가 일꾼들을 고용하고 성전 보수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성전 보수작업의 감독자들은 레위인이었는데 므라리 자손과 그핫 자손에서 각각 두 사람씩 나와서 감독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실력 있는 연주가들이었는데 성전과 예배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보수작업의 모든 측면을 점검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외에 다른 기술들을 가진 레위인들은 각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했습니다.

율법책의 발견(14~21절)

대제사장 힐기야는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들이 헌금한 돈을 꺼내다가 야훼의 율법책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힐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오경 전체(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에게 그 율법책 사본을 보이고 성전 보수작업의 경과를 보고한 후, 율법책 가운데서 몇 구절을 요시야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사반이 읽어주는 것을 듣던 요시야 왕은 그 메시지의 의미를 깨닫고 비통함의 표시로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 후, 힐기야와 그 외 몇 사람을 더 부르게 해서 율법책을 전부 연구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도록 했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고 비통해 한 것은 계약의 지도자로서의 왕의 역할과 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 중요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비통해했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35:5-19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다

유월절을 지키는 요시야

5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6**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7**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이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 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삼만 마리와 수소 삼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8**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이천육백 마리와 수소 삼백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9**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오천 마리와 수소 오백 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유월절 제사

10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11**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12**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야훼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13**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술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14**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라 **15**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라 **16** 이와 같이 당일에 야훼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야훼의 제단에 드렸으며 **17** 그 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칠 일 동안 지켰으니 **18**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19** 요시야가 왕위에 있는 지 열여덟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라기 3장

10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요한복음 20장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역대하 35:5-19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다

유월절을 지키는 요시야(5-9절)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의 언약을 갱신한 요시야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유월절을 준수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의 사후에 또 다시 흐지부지되어 버린 것으로 추측되는 유월절 행사를 위해 요시야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한 율법의 규례에 따라 엄숙히 준수함으로써, 선지자 사무엘 시대 이래로 가장 훌륭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같은 유월절 준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기념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요시야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켜 회복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는 유월절의 참된 성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유월절 제사(10-19절)

모세의 법대로 제사장들이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켰고, 아울러 7일 동안 무교절도 함께 지켰습니다. 본문에서의 유월절 양은 구속사적 의미로 앞으로 오실 메시야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행해졌던 방법대로 찬양대가 조직이 되어 절기가 계속되는 동안 이들은 자신들의 직임에 충실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역대하 36:11-23 바사 왕 고레스의 선포

시드기야의 통치와 예루살렘 함락

11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일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리며 **12**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야훼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13**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야훼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15**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야훼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7**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8**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야훼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9**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포로기

20 칼에서 살아 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21**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칠십 년을 지냈으니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고레스의 귀국 명령

22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야훼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3**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라기 4장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요한복음 21장

12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역대하 36:11-23

바사 왕 고레스의 선포

시드기야의 통치와 예루살렘 함락(11-19절)

여호야킨이 행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킨의 숙부 맛다냐를 유다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유다에서 시드기야의 11년 통치는 주전 597년에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파괴를 끝으로 종결됩니다(주전 586년). 시드기야의 통치도 불순종으로 특징지어집니다.

포로기(20-21절)

예루살렘이 파괴된 뒤, 생존자들은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파괴의 잔재 속에서 역대기 저자는 포로기에 대한 짧은 성찰을 제시합니다. 포로기는 심판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회복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회복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 치러야 했던 대가도 생각하게 합니다.

고레스의 귀국 명령(22-23절)

주전 562년 느부갓네살의 죽음은 바벨론 제국의 급격한 몰락을 불러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2년 후 암살당하고, 그다음 두명의 바벨론 왕은 나보니두스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약 5년동안만 다스립니다. 그동안 페르시아(바사) 제국은 세력을 키웠고, 메대-바사의 통치자인 고레스는 주전 539년에 이렇다 할 전투 한 번 없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고레스는 유다 자손을 포함해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양한 민족 집단을 인계받고, 그들이 각각 본토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후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들 자신이 그 이야기를 완성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깨달음을 남깁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요한복음 21:15-25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 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게 무슨 상관이나

20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물던 자더라 **21**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 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하신 것이리라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24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말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역대하 36장

23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말라기 4장

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읽기 가이드

요한복음 21:15-25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15-19절)

예수님은 베드로의 옛 이름, 시몬이라 부르십니다. 이는 욕망의 호수라고 불리는 디베라 호수에서 그물질 하며 옛날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사물을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의 질문으로 볼 수도 있고, 조반으로 먹었던 빵과 물고기, 그리고 욕망의 호수에서의 그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뿐만 아니라 성숙한 양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며 예수님을 사랑해 가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베드로가 전에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강권하여 베드로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양팔을 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20-23절)

베드로는 요한의 미래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제자의 장래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각자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24-25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는 부족할 줄 안다며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며 끝맺습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12월 6일
공과

심판하시는 종으신 하나님

🎵 하나님 찬양하기

- 342장(통395) 너 시험을 당해
- 542장(통340) 구주 예수 의지함이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하박국 1장 2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를 살던 선지자로서 이때는 불의와 우상숭배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위협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매우 가까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질책하지 않고 심지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며 하박국 선지자가 현재 하나님께 품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추측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적용과 나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모습과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혹시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해 보았던 경험이 있나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마음으로 기도를 쏟아놓았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관찰과 묵상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큰 외침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추측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적용과 나눔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생각보다 훨씬 무섭고 강력한 메시지도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도 하지만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세요.

말씀
다지기

우리 하나님은 종으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좋다는 말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좋은 감정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시야보다 훨씬 넓은 영원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더 큰 지혜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따끔한 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주시는 매를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매 뒤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종으신 분임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12월 13일
공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 하나님 찬양하기

- 545장 이 눈에 아무증거 아니 보어도
-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4장에서 수가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시고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왕의 한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병에 들었고 마침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간다 하여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아들의 고침을 청합니다. 비록 그는 왕의 신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에 순종했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요4:45)

2.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셨나요?

 **적용과 나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 하룻길의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병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희생의 정신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냉정한 대답을 하셨지만 신하는 진지하게 다시 요청했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는 말을 믿으며 다시 돌아간 신하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일들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관찰과 묵상

1.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가는데 아이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한 그때가 언제인가요? (요4:53)
2.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 오셔서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은 몇 번째 표적인가요?



적용과 나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치료된 것이 예수님 때문임을 확인했으며 결국 자신과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질병에 의해 기도하며 치료받은 일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말씀
다지기

오늘 말씀은 왕의 신하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아들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그는 무조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분명 주변에 아는 의사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치료해 주실 것을 먼저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말씀에 따른 순종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로 인해 아들이 치료된 것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이 전화위복이 되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우리의 질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2월 20일
공과

좋은 왕, 나쁜 왕

🎵 하나님 찬양하기

-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역대하 25장 1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아마샤 왕은 요아스 왕의 암살 이후 25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마샤 왕은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즉, 그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기는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분향하게 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마샤의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신앙이 한결같지 않다는 데 있었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아마샤 왕의 첫 출발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대하 25:2)

적용과 나눔 아마샤의 인생은 요아스와 같이 처음에 야훼를 경외하다가 나중에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 들었으며, 그 역시 아버지와 같이 암살당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다만 아마샤도 요아스와 같이 자신의 이해타산에 따라 정치적인 결단을 잘 내렸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는 한결 같은 신앙을 철저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1. 아마샤가 “내 일백 달란트를 어찌할까?”라고 말했던 반응을 볼 때, 아마샤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 무엇을 더 중시했음을 알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대하 25:8)
2.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범했던 실수와 죄악은 무엇입니까?(대하 25:14)

적용과 나눔 아마샤가 에돔 우상을 섬기려 했던 이유는 에돔에게 부를 가져다주었다고 믿었던 에돔의 우상을 통해 자신도 부를 얻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아마샤가 보기에 야훼 하나님은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돈을 들여 용병을 사는 것조차 금하시며 일을 어렵게 만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이런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충고를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방신의 유혹은 강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이방신과 같은 유혹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아닌 자신의 목적과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만을 구한다면 이것이 이 시대의 이방신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다지기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했던 신들을 섬기는 것의 명백한 불합리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마샤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지자를 억박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무시하고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처음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모습과 처음 헌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우상을 섬기기를 우선했던 아마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하나님이 우선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므낏세의 큰 악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

🎵 하나님 찬양하기

-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역대하 33장 1~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유다 왕 므낏세의 55년 통치 기간 동안 유다는 앗수르의 세 왕 산헤립, 에살하돈, 오스납 발의 속국이었습니다. 므낏세는 주전 697년부터 643년까지 다스렸고, 이 기간에는 10년에 걸친 히스기야와의 공동 통치 기간(주전 697-687년)이 포함됩니다. 므낏세의 사악함의 정도는 그의 경건한 부친 히스기야가 아닌 조부 아하스와 닮았습니다. 므낏세의 악행이 열거된 것은 신명기 언약, 즉 모세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므낏세의 악행은 무엇이었나요?(대하 33:2-7)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어디에 영원히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대하 33:4)

적용과 나눔 므낏세는 부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악행을 범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 족속들보다 더 열심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므낏세는 그들을 죄악으로 이끌었습니다. 므낏세는 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 한 최악의 왕으로 손꼽힙니다. 우리도 므낏세와 같이 교만하지 말고, 늘 깨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써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1. 므낏세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회개기도 했을까?(대하 33:12)
2. 하나님께서는 므낏세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대하 33:12-13)

적용과 나눔 그토록 온갖 우상숭배와 죄에 빠져 자신 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로 죄악의 길로 이끌었던 므낏세가, 결국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에 끌려가는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회개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극악무도하게 행했던 므낏세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크신 자비와 용서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므낏세의 악함도 너무나 컸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은 그보다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악 가운데 빠져있을 때, 낙심과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속히 돌이켜 겸손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실 뿐 아니라, 자비와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다지기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숭배의 소굴로 전락시켜버리고 백성들을 꺾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 므낏세의 죄는 다른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할 정도였기에, 공의로신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으로 인해 결국 유다 백성의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북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적이 있는 앗수르 제국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유다 왕국을 치게 하였고 그 결과 므낏세는 쇠사슬에 결박당해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 언약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 비로소 회개하는 므낏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백성들을 다 스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우상숭배 및 온갖 죄와 싸워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2. 자주 넘어지고 불순종할 때라도, 우리의 죄악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진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하디 선교사(3) (Robert A. Hardie)(1865~1949)

(한국 체류 : 1890~1935)(한국이름 하리영 선교사)

선교사들의 연합사경회 개최되고 사경회는 부흥회로 퍼져나갔다.

하디 선교사의 회심은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사경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1904년 정월 초 장로교·감리교·침례교 선교사들이 모여 연합사경회를 개최했다. 캐나다 선교사 롭(A. F. Robb, 1872-1935)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 여러 날 금식 통회하며 길거리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불신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1905년에는 여름 제직 사경회가 있었다. 그리고 이 ‘사경회’는 ‘부흥회’가 되고 말았다. 선교사 롭이 인도했는데, 곧 회개로 이어졌고, 이것은 들불처럼 번져 나가 전남 목포에까지 이르렀다.

1906년 8월 평양에서 장로교와 가리교 선교사들이 하디 선교사를 초청하여 부흥 사경회를 가졌다. 다음 해에도 사경회를 열자고 약속했다. 그해 10월에는 미국으로부터 온 존스톤(H. Agnew Johnston)목사가 인도, 영국, 웨일즈에 있는 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한국 교회도 그런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랐다.



1907년 평양대부흥의 중심이 된 평양 장대현교회

한국 교회의 자랑, 1907년 평양대부흥

가) 1907년 1월 초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사경회 개최

조선의 선교사들은 매년 초 일주일동안 ‘사경회’를 하는 관습이 있었다. 1907년 1월 2일(월요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다. 농한기라 가능했다. 이북의 400여 개 교회에서 온 선교사들과 교회 직분자들이 모였다. 처음에는 장소가 비좁아 남자들만 모였다. 그들은 쌀을 지고 와 성도들의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사경회에 참석했다. 낮에는 관심사별로 반을 나누어 ‘축첩’, ‘조혼’, ‘음주’, ‘흡연’에 관한 강의와 토론을 했다.

나) 길선주 장로가 사경회를 위하여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로 준비

이 사경회의 강사 중 한 명이 길선주 장로였다. 선교사들이 사경회를 위해 저녁에 모여 기도회를 했는데, 나중에는 정오에 기도회를 가지며 준비했다. 하지만 길선주 장로는 이른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준비했다. 그는 이미 1905년부터 새벽에 기도해 오고 있었다. 길선주 장로는 평양의 성도들에게서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것을 느끼고 자기 교회의 장로 한 사람과 매일 새벽 예배당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겸손하게 매일 새벽 4시면 무릎을 꿇었다. 두 달여 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여러 사람이 찾아와 새벽기도회 참석을 물었고, 결국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여 새벽기도회를 시작했다. 4시 반이면 종을 쳤다. 처음부터 대성황을 이루어 첫날 500명이 모여더니 2~3일 지나자 700명이 모였다.

새벽기도회를 시작한 지 4일째, 기도 중에 온 회중이 자신들이 무관심하고 냉랭하며 봉사할 마음이 적고 열심히 부족한 것을 깨닫고 통회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대부흥 이전에 이미 놀라운 영적 각성의 일들이 있었다.

다) 길선주 장로가 첫날 저녁 집회에서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여!”라고 외치다.

1907년 1월 2일 첫날 저녁 집회에 1,500명이 참석했다. 길선주 장로는 저녁 설교에서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여!”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러자 회중이 죄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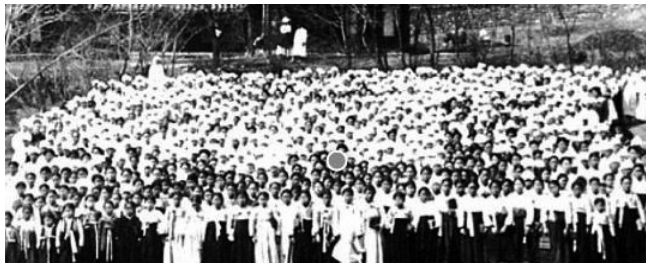
복하고 통회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가고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사로잡혔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떠는 영의 모습으로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울부짖었다고 한다.

1월 12일 토요일 밤 미국 북장로회 소속 블레어(W. N. Blair, 방위량)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설교를 했다. 이 설교를 통해 참석한 모든 자들은 선교사와 조선 그리스도인이 모두 한 몸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선교사가 더 우월하고 조선인은 열등한 것이 아니기에 갈등과 반목을 물리치고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깨달았다.

라)본격적인 평양 대부흥이 1월 14일 밤에 시작되다

1월 13일 주일 밤에도 모인 성도들이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평양 대부흥은 1월 14일 밤에 시작되었다. 1월 14일 월요일 밤이었다. 저녁 8시에 시작된 사경회는 새벽 2시까지 무려 6시간이나 이어졌다. 그 밤 사경회 분위기는 다른 때와 달랐다.

어떤 선교사는 예배당에 들어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이 가득함을 느꼈다고 한다. 선교사 그레이엄 리(이길함)는 “나의 아버지여!”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앞에 모인 성도들

라고 기도하자 밖으

로부터 밀어닥치는 강력한 힘에 모두 압도당하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체험했다고 전했다. 온 회중이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하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 예배당은 어떤 혼돈도 없었고 성령님의 질서로 가득했다. 기도 소리는 폭포 소리처럼 컸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부딪치는 파도소리처럼 들렸다. 죄에 대한 통회가 일어났다.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자 순간적으로 전 회중이 울었다.

그레이엄 리(이길함)선교사는 본국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일어나 죄를 고백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마룻바닥에 쓰러지고, 죄에 대한 고통을 참지 못해 주먹으로 마루를 쳤습니다. 이따금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한 후에 전 회중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수백 명의 통성기도의 결과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이 고백한 후에 모두는 억제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울었습니다. 이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회는 고백과 애통과 기도로 밤 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조지 매쿰(Mc Cune) 선교사가 선교부에 전한 당시의 상황을 들어 보자.

“몇 사람은 믿기 전에 자기 친구를 살해했음을 고백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조리 범했다고 고백했으며, 교회 직원들이 도둑질했음을 고백했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질투와 미움도 고백했습니다. … 우리는 요즈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대단한 즐거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수의 교회의 지도자들인 이들 1,000명이 집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임할까요! 그것은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임재 앞에 매우 겸비하며, 몇몇은 그들이 허풍을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성령님의 역사를 기술했는 것을 겁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으셨다고 확신합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의 모습은 다음 호에 계속합니다.)(은상철 장로)

 **기도노트** 예배와 성경읽기를 하며 주신 기도제목들을 적어보세요